

광주시 감독명령 “적법” “부당” 맞서…재판부 “조정” 전남 인구 42년간 감소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원상회복 소송 쟁점과 전망

민간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자본구조 변경을 원상회복하고 그동안 이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라는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적법한 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자의 수익 극대화구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광주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업자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번 소송이 역사상 최초이며 민자투자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양측이 참여해 조정할 수 있는 기일을 잡았으나, 시일이 촉박하고 복잡한 이해득실이 내재돼 있어 양측 모두 ‘성의 있는’ 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장병우)는 28일 오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을 갖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양측은 각각 20여분간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사업자는 원상회복 명령과 이익귀속명령이 자유로운 경영을 침해하고 그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한 반면, 광주시는 사업자가 부채총액만 지난 해 말 기준 2648억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 이자연체액이 853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과

2004년 민간투자자인 매쿼리한국인프라투자(이하 매쿼리)가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자본금을 기존 543억원에서 130억5000만원으로 줄이고 차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까지 1401억원의 누적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이익 상당액을 사업자가 보유하게 되면 부채를 갚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 이익 귀속명령을 했다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이에 대해 “차입금을 상환하다 보면 자본구조가 변경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자본 감소와 후순위 차입은 민자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이다”고 반박했다.

또 수익 예측 잘못으로 발생한 손

조정 다음달 5일까지…시일 촉박해 어려울 듯

전국 첫 사례…市, 항소심서도 승소할지 주목

실을 운영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에 광주시는 “양수라는 개념에는 그 전 사업자와 맺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실시협약 등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첫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 참여 의지를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매쿼리의 자본 구조가 복잡하고 주주들을 설득할 시간도 촉박해

광주시가 만족할만한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업자 측 변호인은 “조정기일이 잡힌 만큼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 측 변호인은 “자본구조 원상회복과 이익 귀속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저쪽에서 어떤 안이 나오느냐에 조정 성사 여부가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제2순환도로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출자자인 주주에게 과다한 수익을 보장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를 악

화시켰다며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고 감독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업자 측은 중앙심판위원회에 감독명령 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나들목~소태나들목 5.67km)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한 뒤 맥쿼리로 넘어갔으며 광주시는 지난 2000년 협약을 통해 투자액의 9.34% 수익률을 약속하고 향후 28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이후 지난 2011년까지 119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투입됐으며, 2012년 이후 추정액은 5452억원에 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최근 10년간 17만명 순유출…광주도 2만명

전남 지역 인구가 1970년 통계작성 이래 1998년을 제외하고 42년간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현상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호남통계청의 ‘최근 10년간 호남권 및 제주도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전남 인구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1998년 1237명 순유입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계속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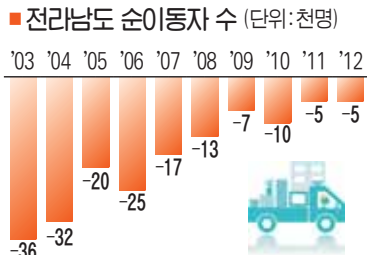
최근 10년(2003~2013)동안 전남 순유출인구는 17만700명에 달했으며 2012년 순유출 규모는 2003년 대비 7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과 무안만 순유입되고 나머지 20개 시·군은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수,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영암, 진도 등 7개 시·군은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은 전남 인구의 1.8%가 순유출된 반면 2012년은 0.3%가 순유출돼 2003년 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10년동안 연령별 순이동자수는 40대(5574명), 50대(7006명)는 순유입된 반면, 10세미만(-1만6266명), 10대(-2만6243명), 20대(-11만6052명), 30대(-1만872명), 60세이상(-1만3847명)은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전남도 인구 계속 순유출지역은 광주가 5만7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만5668명), 충남(1만369명), 대전(3551명), 충북



(2465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 인구는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된 이래 1994년까지 순유입됐으나 2003~2007년 순유출, 2008~2011년 순유입, 2012년 순유출 등으로 최근 10년간 순유출인구는 2만501명에 집계됐다. 2003년은 광주인구의 0.7%가 순유출된 반면, 2012년은 0.1%가 순유출됐다.

2012년 광주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된 사유는 20대 순유출 지속 증가와 30대 순유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인구가 순유출된 지역은 서울이 3만85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만897명), 충남(4407명), 대전(3009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북도 10년간 12만789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호남권 전체로는 10년간 총 31만9000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26만8000명, 대전·충남 등 충청권으로 4만8000명, 강원권으로 3000명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민주, 야권분열 우려 ‘안철수 신당’ 경제

새누리는 “꿈수정치” 맹공

민주당은 28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을 공식화하자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 속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약속지킴이위원회 연석회의’와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안 의원 이름을 전혀 입에 올

리지 않고 애써 거리를 뒀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 때는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에 놓고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가 ‘떼어내기’식의 창당이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또 이계안 전 의원이 최근 탈당계를 제출하자 추가 탈당설이 나온 것을 경

계하는 기류가 강했다는 전언이다. 때문에 안 의원의 신당 창당 파급력을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발표된 실행위원 면면을 보면 감동적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사회적 명망을 가진 원로 몇 분이 안 의원 곁을 떠났다”면서 “그런 점에서 보면 파급력을 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당이 결국은 민주당 등과 연대 또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면서 호의를 보이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모호한 입장을 반박해 국민 혼란만 부추기고 있으며 ‘신야권연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꿈수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은 그동안 새로운 정책이나 정치철학,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소위 ‘신야 합연대’ 속에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뽐들이며 눈치 보는 간보기정지, 평론가정지, 혼수정치는 그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안 의원은 더 이상 안개 속을 걷는 모호함이 아니라 국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본인의 정치적 지향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눈썰고 찾아도 민생은 없다

해남땅끝호텔

일출과 일몰, 그리고 다도해가 어우러지는 곳- 바다 위의 휴식처 해남땅끝호텔

하늘과 맞닿을 듯한 위치에 자리 잡은 해남땅끝호텔은 우월의 공룡박물관, 이운신 명랑대천, 송호해수욕장, 탐광관광단지, 보길도, 달마산, 두륜산도립공원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휴식공간입니다.

영산재·오동재

그 곳에 가면 영산재·오동재가 있다.

한옥호텔 영산재와 오동재의 대청마루에 앉아 차마사리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자면 차마 끝에 매달린 내 시를 한 조각 바람 되어 멀리 날린다 긴 세월 영산재와 여수원바다를 휘돌아 오는 청아한 바람만큼은 아름다운 천성이 되어 코를 스치고 유달산과 영위산에서 불어져 나오는 맑은 정기는 매미의 나팔을 적시어 새 희망을 잉태시킨다.

영산재: 위치, 전남남도 영암군 신흥읍 나불리 292 ■ 예약 및 전화문의, 061)460-0300

오동재: 위치, 전남남도 여수시 덕충동 394-5 ■ 예약 및 전화문의, 061)660-1000

영산재: 규모, 객실수 21실, 한식당, 연회장, 전통문화체험관

오동재: 규모, 객실수 32실, 한식당, 연회장, 전통문화체험관, 박물관